

전북

복잡한 일상 훌훌 털고 여유 만나러 갑니다



지리산 둘레길 을 탐방객 31만명으로 급증...30억원 경제효과

최근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 둘레길'(지리산길)에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남원시와 (사)숲길에 따르면 '지리산 둘레길' 남원코스내 탐방객은 지난 2008년 4만5000명에서 2009년 9만명으로 2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 30만5000명이 다녀가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인

당 1일 교통·숙박·음식 등 체류경비는 1만원으로, 5개월간 남원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30억원 가량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레길 탐방시 경비를 지출하는 곳은 소규모 음식점과 여관·민박·구멍가게·대중교통(버스·택시)으로 조사돼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시는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

함에 따라 둘레길 이용자의 정확한 집계관리와 체험객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지리산 둘레길 1코스 출발지점인 주천 소재지와 2코스 서림공원·3코스 지리산 숲길 안내센터 등 3개소에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 7명을 배치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결과를 토대로 둘레 안내소의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둘레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대인들에게 여유롭게 둘러보며 걷는 '지리산 둘레길'이 각광받고 있다"며 '지리산 둘레길'을 통한 '머무는 관광' 기반시설을 만들고 남원다운 향토색을 느끼면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민박과 특산물 직판장 등의 테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총길이 300여km에 달하는 '지리산 둘레길'은 남원지역과 경남, 전남 등 3개도·5개 시군·16개 읍면 80여개 마을의 지리산 옛길과 고갯길·숲길·강변길·논둑길·마을 길 등을 연결하는 장거리 도보 여행 코스로,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남원시 구간은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외곽마을과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를 잇는 14km의 운봉~주천 구간을 비롯해 ▲운봉~인월 ▲인월~금계 ▲금계~산내 등의 4구간으로 크게 나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순창 독거노인 안전

U-care가 지켜요”

郡, 화재예방 등 효과

순창군이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U-care 시스템'을 구축, 화재발생 예방 등 가지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2008년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2600만원 등 총 8억2600만원을 투입해 'U-care' 시스템을 구축, 관내 독거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U-care' 시스템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응급호출 1171건이 발생해 33건을 출동처리했고, 화재감지기는 1409건 발생해 실제 응급처리 167건, 가스감지는 1753건 발생해 11건 출동처리 등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새만금 친환경 개발...하·폐수 관리 강화

환경부, 수질오염 대책 등 5개부문 지침 마련

새만금 간척지의 본격적인 개발 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하·폐수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 본격화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개발계획 수립과 공사 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비이동 등 원활한 공사를 위해 이달 말 새만금호의 수위를 낮추면 바닷물의 이물질이 감소하면서 호 안에 정제 수역이 형성돼 수질 악화, 적·녹조 발생 등 물 환경이 바뀌는 상

황을 고려한 대책이다. 지침은 ▲물·자연생태·생활환경의 변화 ▲수질오염 사고 ▲지형·지질 변화 등 5개 부문의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하·폐수의 처리기준 강화와 정제 수역의 주기적인 조사, 배수갑문 조작을 통한 해수 유동, 친환경적 준설공법 적용 등이 제시됐다. 어패류 등 해양생물이 폐사하면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즉각적인 수거·처리로 폐사의 확산을 막고, 철새의 서식환경의 변화로 인한 특정 조류의 우점식생(優占植生)을 막으려

고 철새서식지 복원과 대체서식지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작업 차량·선박의 진박 등으로 생기는 기름 유출에 대비해 오일펜스와 흡착포 등 방제 물자를 확보하고, 해사도 준설과 석산 개발에 따른 지형·지질변화에는 기존 토취장(흙을 파내는 곳)의 우선 활용, 토취장 사용 후 복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오는 2030년까지 다기능 복합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1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내렸으며, 내년 1월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천일염 수확 체험 “보기보다 힘들네”

서울시 마포구 천일염 팜투어단이 최근 고창군을 방문해 심원면 염전에서 천일염 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천일염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체계 운영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천일염 공동브랜드 개발과 체험관광 등을 전개한다. /전북취재본부=조종욱기자 jong@kwangju.co.kr

서울시 마포구 천일염 팜투어단이 최근 고창군을 방문해 심원면 염전에서 천일염 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천일염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체계 운영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천일염 공동브랜드 개발과 체험관광 등을 전개한다. /전북취재본부=조종욱기자 jong@kwangju.co.kr

전주막걸리, 캐나다 공장 설립

전주주조 등 20억 투자...내년 9월 생산

전주 막걸리가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돼 유통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의 막걸리 생산업체인 (주)전주주조와 캐나다 내의 교포기업이 공동으로 20여억 원을 투자해 캐나다 현지에서 막걸리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공장은 캐나다 토론토 인근의 마감시(市)에 건립되며 이르면 내년 3월

착공해 9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현지 공장에서는 연간 5000t 안팎의 생막걸리를 생산해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등 북미지역에 유통하게 된다. 전주주조는 생막걸리 제조기술과 인력, 설비를 제공하며 연간 1200여t의 전주지역 쌀이 원료로 보내진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주조는 지난 3월부터 미국에 살균 막걸리를 수출하고 있으나 발효 식품이라는 막걸리 고유의 특성과 맛을 살리지 못함에 따라 현지에서 생막걸리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국내업체가 외국 현지에서 직접 막걸리 생산공장을 설립해 유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전주주조 하수호 대표는 "북미지역에는 430만명의 아시아계와 한인 교포가 사는 데다 막걸리에 대한 열풍이 지속하고 있어 시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면 우리나라의 술과 문화를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동학혁명 희생자 예우하라”

정읍 공무원노조·관련단체들 유골 안장 촉구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종상)과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3일 정읍시 이평면 장재리 소재 전봉준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방치된 진도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조속히 안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과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의 모태”라며 “각지에 동학농민혁명 희생자의 유골을 발굴, 안장하고 성역화해 국가와 국민의 본(本)이 되게 해야 하며 위령탑 건립과 매년 위령제를 지내 116년 동안 구천에서 떠돌던 동학농민혁명 희생자의 원혼을 달래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도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지난 1995년 일본 북해



도 대학의 창고에서 발견돼 이듬해 국내로 봉환됐으나 현재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지난 1906년 진도에서 동학농민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호수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박종진의 유골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부동산 거래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s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다가구주택: 광산구 신창동 대지 68평 3층 신축건물 3억 3천만. 근린주택: 남구 봉선동 대지 41평 3층 상가주택 1억 5천만. 전원주택: 광산구 삼가동 대지 245평 건물19평 전망좋은 투자적합 7천 3백만. 담양읍 백동리 대지 107평 1층 주택 5천 2백만. 상가및사무실: 나주시 이창동 대지107평 건물 140평 1층상가, 사무실 2층 다가구주택 1억 4천만. 상가건물: 동구 지산동 대지 143평 5층건물 7억 9천만. 기타토지: 화순읍 연양리 대지 177평 1억 5천만. >의 상담물건, 판방 다량보유, 소액투자상담, 광주 서구 마루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지: 4,000평. 건물: 650평. 전: 9,500평. 합계: 13,50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표의등록: 41-0163369호. 핸 011-620-3960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복돼지부동산. 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급매. 현대 "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 방 급매 (192㎡ 58py). > 총 분양가 > 5억 6천 136만 > 계약금 > 5613만원 납부 > 매매가 > 주인사정상 싸게 급매. 문 062) 364-1613 의 010-9005-2223